

水稻 잎집무늬마름병에 의한 被害와 收量減少

建國大學校

金光編 李相禧*

Yield loss and disease severity by sheath blight disease in rice.

Kon Kuk university

K.H. Kim, J.B. Lee

「實驗目的」

벼 잎집무늬마름병에 대하여 罹病程度의 差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品種을 利用 하여 品種間 收量減少의 差異 및 罹病程度와 收量減少의 關係를 알아 보고자 實驗을 遂行 하였다.

「材料 및 方法」

1985년에 태백벼, 가야벼, 삼강벼, 서광벼, 삼남벼를 供試하여 病害의 播種 時期를 7月 1日, 7月 15日, 7月 29日로 달리하고 自然區와 農藥處理區를 7월 出穂 期와 出穂 25日에 罹病程度를 調査하였으며 區當 60株씩 수확하였다.

1986년에 태백벼, 가야벼, 관악벼, Labelle, 삼남벼, 관강벼, 삼광벼를 供試하여 7月 20日 부터 2~3回 病菌 播種을 한 播種區 와 自然區 및 農藥處理區와 比較 하고 健全穗과 罹病穗에 關한 이삭의 稈熟進展 양상을 調査 하였다.

「結果 및 考察」

品種 및 播種時期에 따라 病斑長, 病斑高率, 發病率 그리고 被害度는 出穂 期 및 出穂 25日의 調査에서 높은 有意差가 認定 되었다.

잎집무늬마름병에 의한 收量減少는 出穂 25日의 病斑長, 病斑高率 그리고 被害度와 높은 상관 關係가 인정되었으며 收穫과 收穫아래 第1穗까지 病이 進展되었을 때 收量 및 稈熟속의 減少가 크게 나타 났다.

被害率에 關한 이삭과 健全穗에 關한 이삭의 稈熟進展는 品種間 差異를 보였으며 이것은 결국 被害度의 品種間 差異에 그 原因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品種間 收量減少의 差異는 태백벼가 2年間の 平均에서 평균 19% 정도로 감소하고 관악벼와 Labelle이 9~10%, 삼강벼, 서광벼, 삼남벼가 4~6%, 가야벼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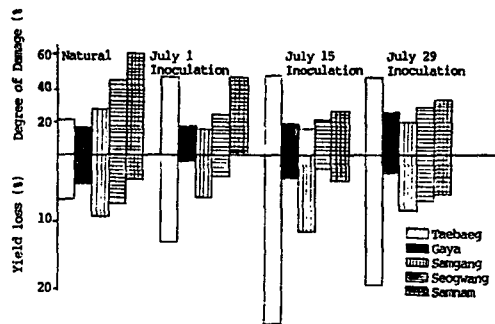


Fig. Varietal difference of yield loss and degree of damage according to inoculation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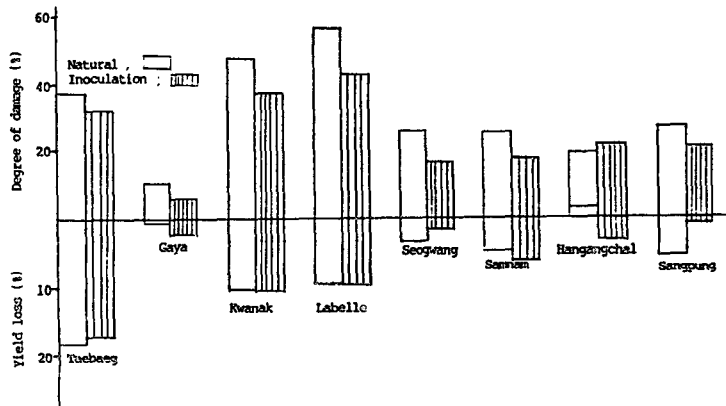


Fig. Varietal difference of yield loss and degree of damage at natural and inoculation plot.

Table. F-values of plant growth traits, yield components and grain yield in 1985 and 1986.

Year	Source of Variance	Culm length (Cm)	Panicle length (Cm)	Fanicle no.	Ripening ratio (%)	1000-grain wt. (g)	Yield/60 hills (g)
1985	Var.	126.5**	25.01**	1.0	6.53°	267.7**	11.61**
	Treat.	0.67	0.86	0.67	7.79**	0.92	2.76*
	V x T	0.45	0.82	0.22	1.77	0.73	0.57
1986	Var.	170.0**	-	29.76**	4.45**	64.7**	23.73**
	Treat.	1.12	-	0.08	6.83**	3.12	6.44**
	V x T	0.55	-	0.94	0.99	1.74	0.9

Table Correlation between yield and characters showing disease severity

Year	Lesion length		Lesion/plant ht.		Infected tiller		Degree of damage	
	Head.	25 D.A.H.	Head.	25 D.A.H.	Head.	25 D.A.H.	Head.	25 D.A.H.
1985	-0.33	-0.54**	-0.55**	-0.50**	-0.33	-0.39	-	-0.51**
1986	-0.27	-0.41*	-0.32	-0.50°	-0.20	-0.30	-0.45*	-0.61**